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42호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 지정 및 시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에 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재 지정 및 시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사항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재 지정사항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문화재 명	수량	소재지	소유자
유형 문화재	제210호	관세음보살42수진언집 (觀世音菩薩四十二手眞言集)	1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667번길8	허○

2. 부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재 지정 사유

- 『관세음보살42수진언집』은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수리한 것으로 원래 절첩장(병풍식)이던 것을 권자본(두루마리)형태로 만들었다. 앞표지는 있으나 글자 판독이 불가하고 뒷 표지는 없으며 발문이나 간기가 없다.
- 권수(卷首)에 관세음보살께 귀의(歸依)하는 내용의 원문이 열거되고 제1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如意珠手眞言)으로 시작하여 제42 관세음보살 총섭천비수 진언(摠攝千臂手 眞言)을 끝으로 상단에 42수의 변상(變相)과 그 우측에 화제(畫題)를 배치하고 변상아래에 범자 한 토(梵字 漢吐)로 구성된 진언이 계속된다. 42수진언 말미에는 「대광지 삼장 사문 불공 봉조 역(大廣智 三藏 沙門 不空 奉詔譯)으로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42수진언집은 고려후기 밀교(密教)가 유행했던 당시 송(宋)으로부터 수입되어 고려에서 중간된 것으로 보이며 불복(佛腹)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진언집의 글씨는 송나라 천노(川老)가 뜻을 풀이하고 운문형식의 칭송하는 글을 붙인 “천노해 금강반야바라밀경(川老解 金剛般若波羅蜜經)”와 유사한 글씨임을 알 수 있다. “천노해 금강 반야바라밀경”은 송나라에서 간행된 불경으로 우왕13년(1387)에 고려에서 복각한 것임이 밝혀져 동일본이 보물 제919호(서울 서대문구), 보물 제974호(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127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한 유물 <관세음보살42수진언집>도 고려 우왕13년(1387)경 복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진언집>에는 현대 <관세음보살42수진언집>에 없는 다라니와 계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고려말에 간행된 <관세음보살 42수진언집>의 원본으로 추정되며 1350년경 고려에서 대중보급판으로 다시 번각한 현존하는 유일본으로 보인다. 또 42도의 원형그림을 볼 수 있으며 사라지고 없는 각종 진언이 수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므로 부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사항

가. 변경 내용

지정 현황	지정 일자	소유자	변경전 명칭	변경 명칭
유형 문화재 제189호	2018. 3. 27	장안사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삼존 및 시왕상 복장유물 (長安寺 冥府殿 石造 地藏三尊 및 十王像 腹藏遺物)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 및 시왕상 복장유물 (長安寺 冥府殿 石造地藏菩薩三尊 및 十王像 腹藏遺物)

나. 변경 사유

- 해당 복장유물이 나온 부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재 제86호의 명칭이 2018년 10월 3일자로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 및 시왕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두 문화재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함
- 단, 문화재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유자 등은 현 지정 내용과 동일함